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23 주일]

2009년 9월 5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35,4-7 >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제 2 독서> 야고보서 2,1-5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 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 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 마르코 7,31-37

그때에 31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439 봉헌: 510 성체: 182 파견: 76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강희만 아브라함, 이효향 안나
다음주 독서: 이종재 프란치스코, 전은숙글라라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연재 마르코

+ 지난주 우리의 정성

이번주 미사 해설: 이민선 데레사
다음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4 구역

봉헌금: \$ 232
교무금: \$ 475
2차봉헌금: \$ 163
합계: \$ 870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9 월 25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9 월 18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못 듣고 제대로 말 못하니 얼마나 야속한 운명이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애절한 마음을 한눈에 읽으셨던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모습도 남다른입니다. 손가락을 귓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혀에 대십니다. 그를 낫게 하시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씀 한 마디’로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강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배려이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에파타!”라고 하십니다. “열려라!”라는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파타!”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아람어’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랐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발음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그가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건강한 귀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얼마만큼 민감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합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때 마음을 여는 행동은 시작됩니다.

† < 생명의 약속 >

믿음을 가진 사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장애인 헬렌 애덤스 켈러 (Helen Adams Keller, 1880-1968) 여사의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란 글의 일부입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현대의 위인입니다. 헬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걷고 뛰고 먹는 일상생활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걷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귀머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를 열어 주시고 굳은 혀를 풀어 주는 육체적인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악령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령의 지배하에 있던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구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영육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주님을 찾는 방법은 다만 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알아보아야 하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모든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서 너의 닫힌 귀를 열어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묶인 혀를 풀어 진리를 선포해라!”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마르 7,34).

† <알려드립니다>

- ❖ 예수회 한국 관구장 신부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 ❖ 우리 공동체의 교무금책정및 납부 방식을 개편,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사 전후를 통하여 교무금 책정을 위한 신립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교무금 신립서를 작성하시어 회계를 맡고 있는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유현영 사도 요한 형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은 매달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월별 납부 내역은 각 가정별로 개별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하여 드립니다. 교무금 책정및 납부에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9월은 우리 공동체가 24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따라서 다음주 (9월 12일) 미사는 창립기념일 및 개강 미사로 할 예정이며, 미사후 공동체의 생일을 축하하는 간단한 다과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 가을학기 주일학교가 다음주 (9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대상 자녀를 둔 교우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해 주실 수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바울이>

- 유판식 토마스

